



앞줄 오른쪽 손 진생소장, 진 금현, 서기화 뒷줄 오른쪽 손 은주, 박 근희, 최 인숙, 고 옥자, 이 상수계장, 장 무상, 정 민훈계장, 윤 미숙, 민 혜홍, 강 훈, 김옥희.



♣ 부산직할시 지부 검사소 ♣

오늘 따라 아침 햇살이 더 밝고 환하게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의 백색 청사를 비추어 준다.

“건강 하십니까?”

“네 건강 하십시오”란 정다운 인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각종 검사 기기 장비 점검과 정도관리 체크를 마친 다음 각자 맡은 업무에 분주히 움직인다.

평소 너털 웃음과 부담없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시지만 검사 업무에 관해서는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허락치 않으시는 손진생검사 소장님. 흰출한 외모에 자칭 크리스미첨이라며 양반 가문의 종손을 뽐내기라도 하듯 집안 일 이라면 주일을 멀다 않고 영천으로 달려 가신다. 유교풍적 이기는 하나 때로는 유머와 위트로 검사소 분위기를 밝게 해 주시는 이상수검사계장. 검사소의 검사 업무 전

만에 관하여 만능 제주꾼이신 정민훈 검사계장. 업무량도 많지만 워낙 꼼꼼하여 남들 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노총각 장가가는 걱정 때문인지 모르지만 영양분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여 뼈만 앙상히……~

부산지부 검사소는 손진생소장님과 이상수, 정민훈 두 검사계장을 중심으로 하여 키는 작지만 야무진 외모에 배움의 열의로 가득찬 노력과 노쳐녀 최인숙양, 아담한 체구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지식을 안고 어려운 일이라도 척척 해결하시는 강훈씨, 서글서글한 인상과 화통한 성격의 소유자 손은주양, 깎듯한 매너에 사나이 중의 사나이 장무상씨, “아니라예” 살포시 미소짓는 순진파 아가씨 고옥자양,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를 센터멘탈리스트 박근희라고 주위에서 불러 준다.

글쎄!

정규직 임상병리사 6명과 김옥희, 서기화, 민혜홍, 진규현, 윤미숙등 5명의 임시직 병리사 들이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일 찾아 드는 내원자들에게 항상 미소짓는 얼굴로 친절·봉사를 기본으로 하여 정도관리에 생명을 두고 신속·정확하게 검사에 임하고 있다. 새로운 검사장비의 도입이나 검사에 관해서는 지식과 테크닉을 사전 숙지·연구하여 다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여 결론을 얻고 있다.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은 물론 가족처럼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 항상 웃으며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과의 자랑이라고 할까! 검사소의 Miss들 모두가 늘

씬한 몸매와 뛰어난 미모가 타 지부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녀들의 성실한 근무성적 내지는 내적 아름다움 또한 가치 있는 과의 자랑이라 할 수 있으리라

어느 철학자가 갈파하듯 “모든 시계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을 가르킨다” 그래 바로 거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공간인 것이다. 내가 선 이자리가 작게는 나의 부모 형제·이웃을 크게는 부산 시민과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 임을 깨닫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 잠재의식이 현재 의식을 뚫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듯이 하면 된다는 신념과 불타오르는 사명감으로 미래를 바라 보리라. 내 젊음의 정열을 협회 위해 바치고 항상 연구하는 협회인, 사고하는 협회인이 될 것을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검사소 직원과 함께 다짐하며 어설픈 글을 맺는다.

건강소식 가족 여러분!

“건강 하십시오.”

(필자=박근희 주임병리사)

●이달의 건강표어●

**한번검사 일년건강
정기검사 평생건강**

(한국건강관리협회)